

무공저

대지진의 한가운데서

강도 7.8의 대지진이 덮친 튀르키예(옛 이름 터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빠져나온 딸의 손을 발견하고 그대로 주저 앉아 숨진 딸의 손을 꼭 움켜쥐고 중년 남성의 사진이 전 세계를 울렸다.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원자폭탄 맞은 듯 처참하게 무너진 동네마다 주민들은 건물 잔해 앞에서 저 아래 어딘가에 가족이 살아있으리라는 희망에 가슴 졸이며 맨손으로 콘크리트 더미들을 헤치고 또 헤치고, 절망감에 몸부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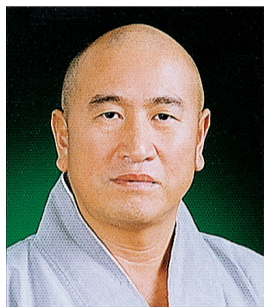
2023년 새해가 이런 비극으로 시작되어야 하는가.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국명을 바꾼지 1년도 채안된 대지진의 참사를 겪어야 하는가.

자연재해는 인간으로

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을 끼치던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 튀르키예는 우리와 형제의 나라라고 칭할 만큼 오랜 역사적 관계를 맺어왔다.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익숙한 '돌궐'은 튀르키예인이 스스로를 부르는 '튀르크'를 한자의 음으로만 표기한 것이다. 돌궐과 고구려는 귀족과 왕족 간의 혼인외교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당시 외교 서신에도 '형제'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한다. 현대로 넘어와서는 1949년 대한민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6·25전쟁에서도 유엔군 중에서 세 번째 규모의 병력을 파병했다.

전쟁 후 소원했던 관계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튀르키예를



중 상
(청계사 회주)

모든 것이 무너진 재해의 자리 인류는 하나 되어 다시 일어나

서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이다. 자연이 무자비한 파괴력을 동원할 때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금 튀르키예 사람들처럼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고, 숨고, 피할 뿐 저항은 불가하다. 특히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으니 피해가 더욱 크다. 수천년 된 유적들이 한순간에 돌더미가 되고, 수십년 보금자리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다.

재해는 고통이지만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의미가 있다. 우리는 모두 생로병사의 존재라는 자각은 마음을 열게 한다. 튀르키예 재해 현장마다 구조대와 성급, 구호물품이 답지하고 있다. 그저 돕고 싶은 마음, 인류애이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인류는 하나가 되어 다시 일어나려 한다.

과거 오스만 제국의 중심으로 유럽

응원하면서 두 나라를 다시 형제의 나라로 복원시켰다.

이렇게 우리와 각별한 나라의 대참사를 치유하는데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에 나서야 한다.

부처님은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질과 재화를 제공하는 실천을 강조하셨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옷과 음식을 제공하는 구난공덕(救難功德)과 걸립공덕(乞粒功德),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는 활인공덕(活人功德), 다리를 놓아 길을 건너게 하는 월천공덕(越川功德) 등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내어 돕는 행(行)을 가르치셨다.

공덕은 끝이 없어서 수천 사람이 헛불 하나에서 저마다 햇불을 가져와 불을 붙여가더라도 사그라지지 않는 이치와 같다는 경전 말씀도 새기며 실천이 절실한 때이다.

문수도량 황간 반야사에서 정월 방생 법회 봉행

방생 인연 공덕으로 나라와 가정 큰 복덕 이루기를

계묘년을 맞이하여 7일간의 정초 신중 기도를 마치고 지난 1월 31일(음 1월 10일) 신도회(회장 유자연)주관으로 주지 성행 스님을 비롯하여 청계사, 석가사 사부대중 250여 명이 동참하여 충북 영동 황간 반야사에서 방생 법회를 봉행했다.

유자연 신도회장은 "3년 만에 떠나는 방

생 길이 기다려지고 설레었어. 반야사는 산세가 아름다운 문수도량으로 주변에 맑은 천이 흐르고 있어서 방생하기 좋은 곳이니 모처럼 나오신 불자들이 방생 기도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말을 했다.

주지 성행스님은 "자신의 업은 피할 수 없는 것, 실수하고 잘못한 것 이해하고

용서하며 매일 참회하고 반아들이면서 살아가는 불자가 되자" 라고 법문했다.

다급 생의 죄업이 소멸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스님들의 우렁찬 법요 소리에 맞춰 불자들은 질서정연하게 제단에 쌀과 향을 올리고 3배 하며 미꾸라지 방생 공덕으로 죄가 소멸하고 지혜를 구하고 해탈을 이루

기를 기원했다. '대방광불화엄경' 봉독을 끝으로 법회를 회향하며 불자들이 준비해 온 소원지를 소각했다. 반야사(주지 명원 스님)에서 정성껏 준비한 비빔밥으로 점심 공양을 하고 청계사 신도회의 봉사, 불자들의 질서있는 행보로 원만한 방생 법회를 회향했다.



다급생의 죄업 소멸하고 방생인연으로 큰 복덕이루기를 기원하는 사부대중



(사진·정리 서용화)

생활의 지혜

이야기 백유경

귀고리 잃을까 목을 베

아들의 머리를 다시 그의 목에 붙이려 했으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에 얽매고, 사회에 얽매어 집착의 덩어리만 키워 갑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가 되어야만 만족하는 탐심은 집착으로부터 생깁니다. 재물이 집착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은 방 거사는 평생 모은 재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하루하루 품팔이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 현대인은 쟁길 줄만 알지 버릴 줄은 모르는 고질병을 앓고 있다. 잃어버리지만 지혜로운 자는 버려야 할 때 버릴 줄 알아 자신과 이웃 모두를 얻게 된다.

○……옛 선사들은 수행은 좁고 배고파야 도심이 생겨난다고 도(道)를 배우려거든 먼저 빈도(貧道)를 배우라고 했다. 빈도를 배운 뒤야야 도와 친해진다는 것이

옛날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일이 있어 함께 길을 갔다. 길에서 갑자기 도적이 나타나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들의 귀에는 순금 귀고리가 있었다. 아버지는 도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귀고리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곧 손으로 귀고리를 당겼으나 떨어지지 않고 귀가 찢어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베어 버렸다. 조금 뒤에 도적은 떠났다. 그는 아들의 머리를 다시 그의 목에 붙이려 했으나 본래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예설》 범부들도 그와 같다. 이름과 이익을 위하여 실없는 주장을 세운다. 두 세상이 있다. 두 세상이 없다. 중음(中陰)이 있다. 중음이 없다고 하여 갖가지로 망상을 내고 법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 그때 다른 사람이 밝다운 논리로써 그의 주장을 부수어 버리면 그는 곧 "우리 주장 가운데는 그런 말이 없다"라고 한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조그만 이름과 이익을 위하여 일부러 거짓말을 하여 수행의 도과(道果)를 잃고, 몸은 허물어지고 목숨을 마친 뒤에는 세 갈래 나쁜 고탐(惡道)에 떨어진다.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조그만 이익을 위하여 아들의 머리를 베는 것과 같다.

다. 빈도를 체득하기만 한다면 무한 거부처럼 도를 쓰게 된다고 한다. 빈도란 무소유를 말하며 진리에 눈뜬 참 부자를 뜻한다. 수행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지만 열만큼 철저히야 빈도란 말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주된 창자가 끊어질 듯해도 먹을 생각하지 말고 무릎이 아무리 시려도 불 췌 생각조차 하지 말라 했을 정도이다.

○……지금 우리 생활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속에 젖어 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조금더 남보다 더 갖기를 바란다. 아귀 같은 중생심을 들어 주다보면 끝내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 초심의 용기로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편한 것을 마다하고 불편함을 택하기는 어렵지만 애초에 그것을 감당하리라는 정신으로 살아야한다.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법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박경선 50부, 박유진 150부
 - ♣ 안양교도소 일동포장기계 150부 김희용 50부, 김정중 50부
 - ♣ 수원구치소 김향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 ♣ 청주여자교도소 정중순 50부, 조수환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은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손준형 50부, 김윤호 50부
-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출가절~열반절 기도

부처님의 출가절과 열반절을 맞아 8일간 신묘장구 대다라니 주력 기도를 봉행합니다. 간절한 신심으로 부처님의 복덕과 선근 인연의 소중한 씨앗을 심고 원만한 수행 정진을 통하여 세계생생 보살행을 닦아 성불 하시길 기원합니다.

- 입 재 : 2023년 2월 27일(음 2월 8일) 월요일 사시
- 회 향 : 2023년 3월 6일(음 2월 15일) 월요일 사시
- 기 도 : 신묘장구 대다라니
- 기 도 비 : 3만원

산신기도 안내

기도를 통해 다급 생래의 업장을 소멸하시고 소구 소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산신기도를 봉행합니다. 인연 있는 불자들에게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입 재 : 2023년 5월 3일(음력 3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철 야 : 2023년 5월 4일(음력 3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
- 회 향 : 2023년 5월 5일(음력 3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기 도 비 : 5만원

- 온라인 : 109-058786-01-413(기업은행)
- 예금주 : 청계사

청계불교대학 10회 수강생 모집

- 개 강 일 : 2023년 3월 7일 화요일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강 사 진 : 수인스님
- 특 강 : 외부강사(1학기), 성행주지스님(2학기)
- 장 소 : 선불장
- 수 강 료 : 30만원 (교재비포함)
- 수강기간 : 1년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사진 3매
(발심품계법회 수계식 및 신도증발급)
- 문 의 처 : 교학처 총무 연문심 (010 4798 0946)

인도부처님 7대 성지순례 기도축원 및 가사불사 접수

인연이 닿아만 될 수 있는 천축 부처님성지에 가사공양을 올립니다. 이번 가사공양 불사에 동참하시어 다급 생래에 지은 업보를 소멸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내에 가득하시어 구경성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3월 5일~14일 10일간 기도 및 축원 해 드립니다.

동 참 금 : 30만원
입금계좌 : 기업은행 109-058786-01-242 청계사
문 의 처 : 중무소 031-426-2348

신도재무 010-5561-8306

축원서식은 중무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산 청계사 주지 성행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산 청계사 주지 성행 합장

절요

절요는 강원 사립과의 교과목으로 중요한 불교 입문서이다. 원제는『법집별행록절요명인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이다. 고려 때 지눌스님이 당나라 종일 스님의 <법집별행록>의 복잡한 내용을 줄이고 자신의 견해를 써 넣어 편집했다. 지눌스님이 입적하기 9개월 전쯤 마지막으로 펴낸 책으로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에 이르는 참선수행의 올바른 과정을 담고 있다. 후학들에게 부처님의 마음자리 공적영지를 단숨에 알고, 그 길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차근차근 나아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돈오점수를 강조하며 정혜쌍수를 역설하였다. <편집자주>

3. 諸宗의 深淺得失(2)

② 北宗의 見解

『비록 가까이 말한바 밝은 구슬이라고 믿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눈으로 본 그 검은 것을 반영하여 또한 이르되 '검은 빛에 쌓이고 덮여 있으므로 그것을 닦고 씻어서 검은 빛을 없애버려야 바야흐로 밝은 모양을 나타내 비로소 명실상부한 밝은 구슬을 진히 얻어 볼 수 있다 한다』

◎ 圭峰스님의 注

北宗의 견해가 이와 같다.

◎ 普照國師의 私記

마음을 닦는 사람에게 배례노니 간절히 모릅시다. 자제히 판단하여 이런 견해에 떨어지지 말라. 가히 닦을 여의고 眞을 구하지 말고 또한 닦을 잘 못 알아 眞이라고도 하지 말라. 만일 망념이 본성으로 조차 일어난 것인 줄을

각이며, 「색을 대하지 않은 때」란 생각이 없는 것이고 「단지 밝고 깨끗한 것만 있다.」고 한 것은 생각이 없음을 스스로 아는 것이며 「국 집하지 않는가, 의심한 것」은 저가 인식해 아는 것을 바로 국 집이라 생각한다는 말이다.

◎ 普照國師의 私記

마음을 닦는 사람이 만일 선악의 성품이 공하여 도무지 얻을 바가 없는 것임을 알면 비록 중일토록 (마음을) 쓸지라도 항상 스스로 무심하여 어리석은 사람의 소견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 만일 반영한 대상이 없어 스스로 생각이 없는 줄을 환히 알 때 다시 인식이 생기면 곧 소견의 그물에 더욱 얽히게 될 것이다.

④ 牛頭의 見解

『또 어떤 사람은 이 여러가지 색이 모두 허망하여 전체가 공하다는 말을 들으면 곧 이 한알의 구슬도 모두다 공하다고 생각하여 곧 말하기를 「아무 것에도 執定한 바가 없어야 비로소 통달한 사람이고 한 법이라도 인정하면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한다. 그러나 이는 빛과 모양이 다 공한 곳이 바로 공하지 않는 밝은 구슬인줄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 圭峰스님의 注

牛頭의 견해가 이와 같다. 般若經에서 공을 말하는 것을 듣고 「본래 깨달은 성품(本覺性)도 공하여 있는 것이 없다.」한다. (그러나) 이것은 참 마음 가운데 분별 탐진등의 생각이 없는 것을 이르는 것이 心空이고 無心을 말한 것이 아니다. 말한바 「無心」이란 단지 마음속의 번뇌를 버렸다는 것이니 그러므로 牛頭는 다만 그 그릇됨을 버렸을 뿐이고 아직 그 율음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普照國師의 私記

만일 마음을 닦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산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비록 이와 같이 말할지라도 만약 말을 따라 집착을 버리고 눈병을 버릴수만 있다면 본래 깨달을 성품도 또한 있는 것이 없다 한들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 이하는 荷澤의 뜻을 비유한다.

덕민스님 <불국사 승가대학학장>

방편의 바다-비유의 가르침

법 화 경

법사품(法師品) 줄거리 <상>

이 제10 '법사품(法師品)' 부터 제14 '안락행품(安樂行品)'까지는 '법화경' 전반부의 유통분이 된다. 불경에 있어서 유통분은 말 그대로 그 경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게 하려는 부분이다. 그래서 유통분에는 그 불경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방법과 공덕이 주류를 이룬다.

'법사품'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법사(法師)가 소중하다는 것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 등이 설해졌다.

법사로서의 임무는 두 가지가 있다. 스스로 법화경을 펴는 일에 힘을 다한다는 것과, 법화경을 펴는 데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서 그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해 주는 것이다.

'법사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약왕보살을 상대로 새로운 형태의 수기를 주신다. 어떤 사람이든지 법화경의 한 계승, 한 구절이라도 듣고 기뻐하면, 그는 미래에 최고의 지혜를 얻으리라는 수기를 받은 바와 같다는 것이다.

'법화경'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방법은 다섯가지이다. 수지(授持) 독(讀) 송(誦) 해설(解說) 서사(書寫)이다. 그리고 이를 행하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법사(法師) 또는 여래의 일행이 된다. 다섯가지 방법으로 법화경을 받들어 모시는 지도자라는 뜻에서 오종법사(五種法師)가 되는 것이다.

법화경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자가 '법사' '말법세상' 법화경 믿고, 실천 모든사람 구제

'법화경'을 받드는 공덕이 큰 만큼, 이 경을 비방하는 과보도 아주 무겁다. 그런데 법화행자에게는 박해자가 많이 생긴다. 그것은 '법화경'의 가르침이 너무 심오하고 불가사의해서 선근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거나 믿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갖가지의 어려움이나 박해를 뚫고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경전입니다. 정식 명칭은 『묘법연화경』으로 제목에 연꽃의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불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들고 지친 말법 시대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법화경』을 수시로 외고, 쓰고, 전하면 인생살이가 한결 즐거워질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우울한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에는 빠져나갈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있기에 그 문을 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법화경』 속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중국의 대표 불경연구가 페이용 교수의 저서 『법화경 마음공부』를 중심으로 편집부에서 정리해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법화경'을 만드는 곳은 바로 여래의 온 몸 또는 사리가 있는 곳과 같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법화경'을 설하는데 주의 해야할 점이 있다. 오종법사는 반드시 자비심이라는 여래의 방에 들어야 하고, 온화인 욕심이라는 여래의 옷을 입어야 하고,

상에서 반드시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리라.'고 답하라.

『약왕아, 만일 악한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일 겁 동안을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항상 부처님을 헐뜯고 욕하고 훼방하더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벼우나, 어떤 사람이 한 마디 악하고 나쁜 말로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재가자나 출가한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면 그 죄는 매우 무거우니라.』

『약왕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 말법의 험악한 세상에서 능히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깊이 믿고 몸으로써 실천하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을 공경하고 예배하기를 마치 부처님을 공양하듯이 하여라. 가지가지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으로써 공양하고 그를 도와 함께 불도(佛道)를 이룩하라.』

부처님은 후세에 법화경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법화경' 정신에 승차(乘車)할 것을 권장한다.

뉴스&뉴스

계묘년 정초 신중기도 봉행



불기 2567년 계묘년 검은 토끼해 정초 신중기도를 지난 1월 24일 아외법당과 각 전각에서 매서운 한파

속에도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했다. 삼귀의, 합창단의 '백의관음', '밝은 햇살처럼' 음성공양 후 동참한 보살들이 마주 보며 세배를 주고 받았다. 신도회 회장(유자연)의 새해 인사말로 "청계사에서 복 많이 지으시고 받으시라"고 덕담을 했다. 이어 주지성행스님은 "토끼해를 맞아 '교토삼굴(狡兔三窟)' 지혜를 배워 불자들이 항상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을 하는 한 해가 되리"고 법문했다. 이어 사홍서원과 산회가로 범회를 마쳤다. <글 심대덕님>

주지스님은 "임춘이 오는 길목에 부처님 가피를 얻어 성불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불자들은 소원지에 발원문을 써서 한 해를 기원하며 소작했다. 청계사는 불자들에게 삼재소멸부와 임춘대길표를 나눠주고 공양으로 떡국을 준비했다. <글 주향진님>



한 해의 시작 임춘

지난 4일 24절기의 봄을 알리는 임춘기도가 아외법당과 각 전각에서 주지(성행)스님과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어린이 법회

즐거운 스키 배우며 심신 다져요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연맹장 성행스님)이 주관하는 제9회 인성함양 스키캠프가 지난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강촌 엘리트산 스키장에서 열렸다. 200여명의 어린이,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모습을 떨쳐 버리고 모처럼 대자연의 설원을 마음껏 누렸다. 성행스님은 입재식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스키를 타고, 대자연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도 배우고 친구들과 거리 서로 도와 신나는 시간을 보내라"고 당부했다.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스키강습과 눈썰매를 타며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 한편 사찰별로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 등 몸과 마음도 단련하고 우정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은 오는 8월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172개국 청소년 4만 5천여명이 참가하는 세계잡버리 행사에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한 불교관을 운영 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따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계획이다. <어린이법회 법사 수인스님>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가 2월 5일에 본성이 있었

습니다. 1월 28일 50여명의 예선에서 합격한 청계사 어린이 김시우(초4)가 저학년부의 대상, 청소년 이현준(중3)이 고학년부의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이패드를 선물 받은 시우는 너무 기뻐하였고 법회에 더욱 열심히 나오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준이(중3)는 "중학교 마지막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흐뭇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글 조여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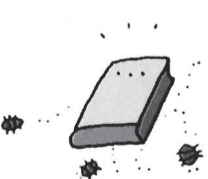
“헛됨을 찾고, 메아리를 뒤쫓기에

그대들의 심신만 괴롭구나.

꿈을 깨듯이 허물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달은 뒤에는 무슨 일이 있겠는가……?”

—덕산선사



마음밭에 무얼 심지? 중에서

건망증이 좋아요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106

지장성지①

선운사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이하에 여긴 마을사람들이 너무나도 솟과 돌을 가져옴으로써 큰 못은 금방 매워지게 되었다. 이 자리에 절을 세우니 바로 선운사의 창건지이다.

검단스님은 "오묘한 지혜의 경계인 구름 [雲]에 머무르면서 갈고 닦아 선정[禪]의 경지를 얻는다" 하여 절 이름을 '禪雲'이라 지었다고 전한다.

다. 1936년 일제강점기에 문화재 절도법에 의해 강제로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일본인 소장자들의 꿈에 나타나 선운사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장보살의 말씀을 듣지 않자 갑자기 소장자들의 집안이 망하게 됐다. 이에 놀란 소장자가 1938년 11월에 선운사로 돌려보내 다시 돌아온 신이한 금동지장보살상이다.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선운사는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도솔산(兜率山)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이다.

도솔산은 선운산(禪雲山)이라고도 하며, 조선 후기 선운사가 번창할 무렵에는 89개의 암자와 189구에 이르는 요사(寮舍)가 산중 곳곳에 흩어져 있어 장엄한 불국토를 이루기도 하였다.

도솔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선운사는 김제의 금산사(金山寺)와 함께 전라북도의 2대 본사로서 오랜 역사와 빼어난 자연경관, 소중한 불교문화재들을 지니고 있어 사시사철 참배와 관광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검단스님의 창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본래 선운사의 자리는 웅이 살던 큰 못이었는데 검단스님이 이 웅을 몰아내고 돌을 던져 연못을 매워나가던 무렵, 마을에 눈병이 심하게 돌았다. 그런데 못에 솟을 한 기마씩 갖다 부으면 눈병이 씻은 듯이 나곤 하여, 이를 신

지옥중생 구제 전문 지장보살이 모셔진 지장 신앙의 중심도량 '선운사'

·지옥중생 구제 전문 지장보살

옛날엔 관음전의 주인공으로 계시다가 새로 지은 전각 지장보궁(地藏寶宮)으로 옮긴 금동지장보살상은 지옥중생 구제 전문보살로 선운사를 지장신앙의 중심도량으로 있게 했다. 조선 성종7년(1476)에 봉안한 지장보살상은 1m의 크기에 소맷자락을 아래로 늘어뜨려 설법인을 하고 있다. 두건을 쓰고 아름다운 목걸이를 한 중년부인의 후덕하고 넉넉한 모습이라 지옥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에 충분하다. 이 지장보궁에는 지옥의 시왕이나 옥졸, 저승사자도 없어 지옥중생 구제에 완전 노마르 찬스다. 수많은 지장보살님들이 그냥 지옥에서 데리고 나오면 된다. 또 이 금동지장보살상의 영험은 유명하



◇보물 제2031호 참담암 약사전 석조 지장보살좌상.

(정리: 황청량님)

사찰음식 배워보기 열무된장오이겉절이

*재료: 열무1kg, 오이1개, 콩고추1개, 소금1/2컵 (양념; 채수1/2컵, 된장2T, 고춧가루1/2T, 매실청1T, 식초1T, 참깨1T)

- *만드는 법:
1. 열무는 깨끗이 다듬은 뒤 소금으로 주물러 씻은 뒤 물기를 꼭 짠다.
 2. 칼등으로 열무를 지근지근 두드려 4cm길이를 자른다.
 3. 콩고추는 4cm길이를 채 썬다.
 4. 오이를 양념장에 먼저 섞어놓는다.
 5. 양념된 오이에 열무, 콩고추를 넣고 버무린다. (정리: 주향진성)



1400여 년 전 중국에 산적들이 수시로 복양(福陽)을 습격하였다. 이 번엔 10여명을 포획해 그들의 목과 손을 자르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게다가 복양의 한 지역에는 홍수가 덮쳤다.

무서운 수마는 수백 개의 집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렸고,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은 갈 곳도 없었다. 하루 밤에 물 밑으로 사라져 버렸다. 주민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갈 곳도 없었다.

복양의 관리 이배덕(李培德)은 그의 관할구역 내의 사람들에게 들이닥친 불행에 대하여 시급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도교신자인 이배덕은 자비로운 사람이어서 관내 불행한 주민들을 불쌍하게 여겼다. 그는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다.

그리고는 그의 스승인 위대한 도사(道士) 임(林)선생을 찾아 뵈고 지혜를 구하기로 했다.

기회가 생겨, 도교 사원인 이선관

불상생과 방생의 공덕 생명사랑 이야기 100

95 현명한 사람의 말

(二仙觀)으로 스승을 만나러 갔다. 그곳에 도착하니 도사는 앉아 명상 하면서 신통력을 쓰고 있었다.

수는 수년간 열심히 가꾼 과일들을 망쳐 놔습니다. 스승님, 그 까닭을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이 답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거의 이 절을 떠나지 않아 최근의 일들을 모르네. 하지만 모든 이치는 뿌린 대로 거둔다네. 주민들이 이기적이고 잔인해서 오직 자기 만 생각하고, 고기를 먹으려고 동물들을 죽이네. 죽은 동물들은 분노에 차있지. 만약 분노가 많이 쌓이면, 자연의 평화를 깨뜨려 하늘이 깨져 열리고 물이 육지에 홍수를 일으킨다네. 일부 동물들이 사람으로 환생하여 돌아와 그들에게 가해진 악행에 대한 복수로 죽이고 약탈하지. 자연의 힘을 피할 수 없네. 악행을 한 사람은 그 자신과 가족에게 불행이 불러온다네. 자연에 거스르는 사람은 스스로 비극을 불러오게 되지."

자연에 거스르면 어떻게 순식간에 사라 지는지를 보았던 것이다.

(중국 명나라 고승 연지 주광스님)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
-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
-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
-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정계사 설법전
- ◇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
- ◇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

-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 30분
- ◇ 문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109-058786-01-413
중소기업은행 (예금주:정계사)

※ 차량안내

미가참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입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알립니다

청계사보는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를 기다립니다.

또한 '청계사보'를 함께 만들 신심 있는 출판부원을 찾습니다. 신문제작과 법보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 청계사 출판부
- 부장 : 조여래장 010-8382-2125
- 총무 : 주향진성 010-3745-4525

메일주소 : cksb108@hanmail.net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로376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마술단 매직게이트' 마술쇼 관람

문화예술 직접 접할 기회 많아지길

'수리수리 마~하 수리~'
녹향원 가족 여러분 '행복의 나라로 출발'

2023년 계묘년 첫 번째 문화예술을 접하는 시간!

마술쇼 시작 전 거주 가족들은 어떤 느낌일지 물어 보았다. "정말 tv에서 보던 마술을 직접 볼 수 있다고요?" "와 정말 기대네요."라고 했다.

마술은 병 마술, 줄 마술, 포장 마술, 링 마술, 꽃 마술, 봉 마술, 카드 마술, 거주인



참여 인형 마술, 직원 참여 분장 마술 순으로 이어졌다. 마술쇼를 본 소감은 "내가 직접

접 나가서 인형 마술을 하니까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라고 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하여 마술쇼와 같은 문화예술을 직접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2023년 1월 벽두부터 녹향원에서 직접 마술쇼 관람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23년 이어질 문화예술과의 여행하기를 기대해보는 계묘년 토끼해이다.

(글 사회복지사 신창호)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3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

Table with 6 columns: 구분, 수입 금액, 지출 금액, 전월이월금, 15,846,355, 차기이월금, 11,746,785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31일)

- 직접후원: 후원금: 5,000원-정계영, 김중호, 가진, 후원금: 10,000원-한유영, 김영숙, 김순임, 손선중, 변일용, 후원금: 20,000원-고 준, 광경희, 권동희, 김대희, 김재기, 김재태, 김현화, 박민주, 박은영, 박정목, 박정선, 백궁덕, 신지현, 윤여승, 이대환, 이미애, 이원철, 보람광고, 후원금: 30,000원-구은정, 김경연, 김민경, 김형태, 송생균, 윤채규, 이영순, 후원금: 40,000원-정희윤, 후원금: 50,000원-김나현, 김정주, 김중철, 안혜경, 유병주, 이종우, 진향기, 추준호, 후원금: 100,000원-김동연, 메트로병원장례식장, 후원금: 200,000원-경기도의회, 후원금: 250,000원-㈜천은엔지니어링, 후원금: 400,000원-복지정책과, 후원금: 500,000원-전문권, 허정옥, 후원금: 600,000원-㈜범양전력, 후원금: 1,000,000원-이광희

물품 후원

발도르프대안학교-레몬청, 굴청, 장영미-떡, 커피, 지세영-양말, 청계동사무소-라면, 파리바게트-빵, 김재기-싱크대, 명성FMC-붕어빵만족믹스, 청계sk주유소-커피라면, 삼성에스원-사과, 삼미주유소-쌀, 의왕시청-물티슈, 칫솔, 휴지, 마사회-젓갈, 잣, 레드향, 쌀, 전문권-홍삼, 안영이-굴, 김예식-구산, 갈래, 목장갑, 고무장갑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벗

인생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기에 한마디로 허무하다는 뜻이다.

과연 인생은 허무한 것일까? 그렇다면 왜 태어났단 말인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허무한 인생을 꼭 살아야만 하는 걸까? 사실 어렸을 적부터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고민을 남들보다 꽤 많이 한 편이다.

알 수 없는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대답도 없는 허공에다 그리도 했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이 없던 어린 시절 못내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인생이란 잠시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니겠는가.

산수가 넘은 나이에 만감이 교차하며 지나간 세월 속에 무엇을 하였

인지 아닌지 보여 준다고 했다.인디언들도 벗을 가리켜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 했다.

벗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벗이 진짜 벗이다. 모진 바람이 불 때라야 강한 풀을 알 수 있다. 질풍경초(疾風知勁草)라는 글귀처럼 어렵고 위험한 처지를 겪어봐야 인간의 진가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반드시 떠오르는 인물이 추사 김정희다.

한때 잘나가던 추사가 제주도도 귀양을 가보니 많은 벗들은 누구 한 사람 찾아주는 이가 없었다.

그런 그에게 소식을 전한 이가 있었는데 예전에 중국에서 사절로 함께 간 우봉이서 이상적이라는 선비다.

그는 중국에서 많은 책을 구입해 그 먼 제주도까지 송달했다.



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벗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벗이 진짜 벗이다

인생길에서 따뜻하고 정겨운 우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으며 무엇을 이루었는가? 자문자답을 하여본다.

이 나이쯤 되면 열심히 살아온 건전한 정신과 건강을 함께 힘이 올바른 인생의 명답이 아니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노후에 즐겁게 산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정을 함께 나눌 벗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옛말에 슬과 신발과 마누라는 오래 될수록 편한 하다는 말이 있듯이 인생에 있어 삶의 전부 돈도 아니요, 지위나 권력도 아닌 상대방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말고 본연의 덕을 가려 사귀어 온 믿음의 벗이 진짜 벗이 아니겠는가?

즐겁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하여간 좋은 벗의 인연은 서로가 함께 노력하며 긴 여행길에 길잡이가 되는 즐거운 일도인생(一到人生)이 아니겠는가.

벗이란 부결자와(不結子花)는 휴요종(休要種)이요 무의지봉(無義之朋)은 불가교(不可交)라 하였다.

부결자와 휴요종(不結子花 休要種)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무의지봉 불가교(無義之朋 不可交) 의리가 없는 벗은 사귀지 말라 의로움이 없는 벗은 사귀지 말라는 뜻이다.

성공은 벗을 만들고 역경은 벗을 시험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행은 누가 벗

극도의 외로움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던 추사에게 그의 우정은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고 추사는 절절한 우정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세한도(歲寒圖)이다.

세한도라는 이름은 날씨가 차가워지고 난 후에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안다.

인생의 5가지 부자로는 돈, 시간, 벗, 취미, 건강을 꼽는데, 그중에서도 벗이야말로 인생 후반이 넉넉한 진짜 부자라고 할 것이다.

외롭고 힘든 인생길에서 따뜻하고 정겨운 우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벗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주위에 마음을 기릴 벗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필시 불행한 인생임에 틀림없다.

결국 내가 벗이 없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의 벗이 되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좋은 벗을 얻는 일은 전적으로 자신이 하기에 달려 있다.

한편 벗으로 삼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는 예로부터 5무를 들고 있다. 이는 무정, 무례, 무식, 무도, 무능한 인간을 말한다.

그러나 자신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과연 참된 벗이란 어떤 벗일까?

오늘도 행복한 날 되소서

이달의 후원금

금 15,846,355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후원자분들은 기존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하시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를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분은 녹향원 : 031)426-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녹향원 자원봉사 명단

박혜숙, 김승범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운(運)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해의 지혜

(정리 심 대덕산)

Table with 8 columns representing zodiac signs: 쥐띠 (36년생), 호랑이띠 (38년생), 용띠 (40년생), 말띠 (42년생), 원숭이띠 (44년생), 개띠 (34년생), 소띠 (37년생), 토끼띠 (39년생), 뱀띠 (41년생), 양띠 (43년생), 닭띠 (45년생), 돼지띠 (35년생). Each entry includ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year's characteristics.